

강진군민이 펼치는 창작 가족뮤지컬 하반기에도 계속

3미3색 '조만간'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강진 오감통서 공연

강진지역 주민 배우들이 만들어가는 '조만간'(조선을 만나는 시간)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인 강진찬가, 병영권무가 결집되는 창작 가족 뮤지컬 '장사의 법칙'이 하반기에도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 공연은 하반기에도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와 2시 30분, 강진 오감통 야외공연장에서 상설 진행된다.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해 공연 시간이 새롭게 조정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재단장했다. '조만간 프로젝트'의 주제는 '3미3색'으로 강진의 역사와 문화를 뮤지컬이

라는 형식을 통해 세 가지 색다른 '맛'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단맛은 강진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강진찬가이고 매운맛은 역동적인 전통 무용을 담은 병영권무이다. 짠맛은 정직한 장사와 공동체의 단합을 그린 가족 뮤지컬 장사의 법칙을 일컫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강진인의 자부심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김기태 대표이사는 "조만간 프로젝트가 강진을 대표



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연과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과 연계하는 부분도 보강했다"고 밝혔다. 공연 일정은 기상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비가오면 일요일로 변경 개최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조만간 프로젝트 공식 인스타그램(@jomangan_since201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강진군문화관광재단(061-434-7993)으로 하면 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서구, 음악극 '병사 이야기' 무대 오른다

스트라빈스키 대표작, 인간의 선택 주제로 29일, 30일 공연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29일과 30일 서빛마루문화예술관에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공연예술지역유통사업' 공모 선정작인 스트라빈스키 음악극 '병사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이 작품은 러시아 민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대표작으로 병사가 악마에게 영혼(하이올린)을 팔고 부와 권력을 얻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악과 연극, 내레이션이 결합된 복합 공연 형식으로 인간의 욕망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겪는 내면의 갈등을 날카롭고 상징적으로 그려낸다.

이번 공연은 서사와 연주가 어우러진 고전 음악극으로 스트라빈스키 특유의 리듬감 있는 음악(첼레오케스트라), 배우의 연기, 내레이터의 해설이 조화를 이루며 깊은 몰입을 유도한다. 관객은 작품 속 병사의 여정을 따라가며 삶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공연은 29일과 30일 오후 7시에 두 차례 진행되며 전석 1만원이다.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문화예술과 (062-350-4564)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작품은 고전 속 주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공연으로 예술을 통해 스스로의 욕망과 선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깊이 있는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감성을 울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석우 기자

광양꿈빛도서관, '독서의 달' 9월부터 '책뜨락 놀이터' 운영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연·강연·독후활동 연계

광양꿈빛도서관은 오는 9월부터 11월 까지 어린이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책뜨락 놀이터'를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책뜨락 놀이터'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공연, 강연, 독후활동을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그림책 작가 4인을 초청해 어린이들이 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어린이들은 작가와 직접 만나 책 속 인물과 이야기를 공연으로 접하고,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프로그램 말미에는 작가가 준비한 독후활동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책과 작가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오는 9월 6일 김리라 작가의 인형극 공연 '미술시간 미술시간'으로 시작된다. 공연 후에는 퀴즈 맞추기와 '내가 만드는 미술주스' 독후활동이 이어진다. 김리라 작가는 '네모 네모 체육 시간', '소리통통 음악시간' 등을 집필한 바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9월 27일 김해등 작가의 강연으로, '꿈을 찾아 떠나는 동화 여행'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해등 작가는 '도도한 씨의 도도한 책방', '전교 네 명 머시기가 간다' 등을 중심으로 그림책 속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10월 28일 열리며, <그릴 때가 있어>, <난 남달라> 등의 저서로 알려진 김준영 작가가 1인극 '할아버지와 순돌이는 닮았어요'를 선보인다. 공연 후에는 '움직이는 강아지 만들기' 독후활동이 이어진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11월 중 열리며, 박현주 작가가 <이끼짓 거>를 중심으로 그림책 제작 과정과 숨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어 '용기의 색'을 주제로 어린이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작가의 주요 저서로는 <비밀이야>, <나 때문에>,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사장님들> 등이 있다.

9월 6일 열리는 김리라 작가와의 1차



프로그램은 6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8월 27일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광양/신선호 기자

장흥군서 코믹가족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공연

장흥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와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코믹가족오페라 '만능재치꾼 피가로,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공연한다고 전했다.

로시니가 작곡한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희극 오페라 중 하나다.

알라비바 백작과 로지나와 사랑 이야기와 이들을 돕는 만능 재치꾼 피가로의 활약을 풀어낸 총 2막의 오페라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익숙한 노래들이 많은 작품으로 남녀노소, 쉽고 즐겁게 볼 수 있는 공연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무대는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공연 기획자로 성공한 김선 단장과 이탈리아 정통 오페라 지휘자인 카를로 팔레스키가 2014년 설립한 '김선국제오페라단'에서 이탈리아 원어 버전(한국어 자막)으로 선보인다.

카를로 팔레스키가 지휘하고 조르조 본조반니의 연출 아래, 바리톤 김종표, 박세진(피가로 역), 소프라노 양두름, 구은경(로지나 역), 테너 강동명, 정재윤(알마



비바 백작 역), 바리톤 박상욱, 장성일(바르톨로메), 베이스 김영복, 이준석(바질리오), 메조소프라노 김윤희, 강수정(베르타 역), 베이스 바리톤 김진욱, 원재선(피오렐로 역) 등 국내외 실력파 성악자들이 출연한다.

뉴스유펠하모니오케스트라, 메트로페라합창단도 함께 풍성한 오페라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흥군 제공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은 올해 하반기 시민 독서진흥사업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도서관·인(人)·북(book)'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대표 도서관인 시립도서관이 주최하고 ▲책정원도서관 ▲광주중앙도서관 ▲상록도서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청소년도서관 ▲일곡도서관이 함께 한다. 행사 기간 작가와의 만남, 미술 공연, 인문학 강연 등 책과 가까워질

광주시, "도서관서 생각·마음 살찌우세요"

시립도서관, 9~10월 독서진흥 '도서관·인(人)·북' 개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책정원도서관은 9월27일 이옥재 작가, 백애송 시인, 이현우 마술사를 초빙해 인문학 강연을 운영한다.

광주중앙도서관은 10월25일 이서우 그림책 작가와 함께 환경·기후·인성교육 관

련 강연과 인형만들기 체험을 마련한다. 상록도서관은 9월27일 '어린이·청소년·어른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표준'을 주제로 강연을 연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10월25일 신아로미 작가를 초청해 '혼자서도 괜찮은

삶, 나답게 사는 용기를 주제로 싱글라이프 이야기를 나눈다.

청소년도서관은 9월20일 최강욱 작가를 초청해 '이로운 보수, 의로운 보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일곡도서관은 9월21일과 10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책 한 입 솜사탕 한조각'을 주제로 신유미 작가 강연과 흥얼흥얼 마술사 공연을 마련한다.

/김명수 기자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